

무안군 숲가꾸기 사업 방만·부실

나무은행 일부 수목 고사...조경수 가치 없어 산림사업 발주도 수의계약 체결 '예산 낭비'

무안군이 산림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안군은 올해 도비와 군비 등 1억3천500만원을 들여 무안읍 성남리 등 3개소에 나무은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무은행은 숲 가꾸기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질 나무 중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별, 이식해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그러나 전남도가 현경면 용정리 나무은행을 감

사한 결과 '푸른무안 조성 현수운동'으로 기증받은 무궁화화 향나무, 홍단풍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수목은 고사하거나 잡초에 묻혀 생육이 불량해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등 사후관리가 부족함으로 지적됐다.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조림, 숲 가꾸기, 임도개설 등 산림사업 시행시 공개경쟁을 통해 발주도록 규정돼 있으나 특정업체인 무안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

났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경쟁입찰공사의 적격심사시 예정가격대비 최저낙찰률 87.745%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조립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95%이상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조립사업의 경우 몇 년간 풀베기 작업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해야 돼 불가피하게 지역 산림조합과 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곡성군이 도내에서 처음 도입한 나무은행 제도는 지난해 9개 시·군으로 확산한 데 이어 올해에는 21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홍도 바다쓰레기 일제 수거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김용무)가 최근 신안 홍도 일원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활동을 실시했다. 서부사무소는 선박 2척과 그물망, 잠수장비 등 대규모의 장비와 스킨스쿠버 팀,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비탄속 쓰레기와 부유물 2t을 수거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목포 달리도·울도 해역에 감성돔 치어 11만마리 방류

목포시가 수산자원 증대와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2일 달리도와 울도해상에서 감성돔 치어 11만 마리를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치어는 6cm이상으로 2년 후에는 25cm이상 성장해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 188ha를 시설하고, 각종 치어 88만여마리를 방류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지청, 지검으로 승격해 달라”

목포상의, 대검·법무부·행안부에 건의 인구 늘고 경제규모 커져 업무량 급증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가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을 목포지검으로 승격해 줄 것을 대검찰청과 법무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목포상의는 건의문에서 “전국에 설치된 지검 18개소 중 도청사를 이전하지 않은 충남과 경북을 제외하면 도청소재지에 지방검찰청이 설치되

지 않은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며 “지난해 목포지청에서 접수 처리한 사건수(2만988건)도 춘천지검(1만5793건)보다 많을 만큼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검 승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목포상의는 “2011년 목포지청 신청사 이전으로 도청을 비롯한 광역단위 기관들과의 상시 업무협조체계 유

지와 법률지원, 지리적으로 밀접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과의 신속한 수사지원 체제구축을 위해서도 지검으로의 승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목포상의는 또 “남양진도시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조선관련 기업체 증가, 대불산단 가동 효호로 인한 인구 및 경제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역민의 법률적 편의제공을 위해서도 목포지검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유달 연합 어린이회’ 결성 목포교육청

목포교육청(교육장 최경수)이 최근 초등학생들에게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심어주기 위해 ‘유달 연합 어린이회’를 결성했다.

유달 연합 어린이회 초대 회장에는 서부초등학교 황재훈 학생이 선출됐으며 예향초등학교 황지은 학생과 신흥초등학교 박현민 학생이 부회장, 상동초등학교 박세미 학생이 총무로 뽑혔다.

유달 연합 어린이회는 앞으로 학생들끼리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 봉사활동과 탐구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최경수 교육장은 “연합 어린이회가 학생들에게 민주적 토의 및 실천 경험의 장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목포 앞바다는 지금 선상 갈치 낚시 분야성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가 선상 갈치 낚시로 분야성을 이루고 있다.(사진)

목포지역 낚시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선상 갈치 낚시가 본격화되면서 평화광장 앞바다에는 수은 집어등을 단 낚시어선 70여척이 밤바다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

이들 낚시어선에는 적당 10~20명의 강태공들이 자리 잡고 밤샘 은빛 갈치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갈치가 올라올 때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지는 등 축제 한마당을 연상케 하고 있다.

낚시꾼들은 요즘 하룻밤에 60cm 크기의 갈치를 50여마리 정도 잡아 올리는 등 짜릿한 손맛을 만끽하고 있다.

14년 전부터 시작된 목포 갈치 낚시는 도심 바로 앞 바다 선상에서 이뤄져 새로운 볼거리이자 즐길거리



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한편 3일부터 이틀간 평화광장 일대에서는 ‘은빛 갈치축제’가 열린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홍어잡이 체험하며 즉석 경매도’

신안군 11~12일 흑산도 물양장서 ‘홍어축제’

오는 11·12일 이틀간 신안군 흑산도항 예리 물양장 일대에서 ‘홍어 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홍산홍어 무료 시식회, 홍어잡이 체험관, 즉석 홍어 경매장 운영, 홍어 가요열창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또 용왕제를 비롯해 ‘흑산도 홍어 컵 갯바위 낚시대회’와 ‘전국 섬 등반대회’ 등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갯바위 낚시대회는 2인 1조 60팀을 선착순 신청을 받아 대회가

펼쳐지며 우승, 준우승, 3등, 잡어상, 행운상 수상자에게 상금과 상품이 주어진다.

등반대회는 흑산도 칠락산에서 상라산으로 이어지는 옛 산길(6km·소요시간 3시간)을 따라 다도해와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진행된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신안 다도해 ‘유네스코 보전지역’ 신청

전남도, 홍도·증도 갯벌·태평 염전 등 757km²

전남도가 1일 신안 다도해 일대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UNESCO)에 제출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UNESCO Biosphere Reserves)’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도록 보전할 가치가 있는 생태계를 유네스코가 지정하게 된다.

신청지역은 신안 일대 약 757km²로 홍도, 비금, 도초도 등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과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탐사르(국제습지보호협약) 습지로 지정된 장도 산지·습지, 증도의 갯벌 도립공원, 태평 염전, 우이도 등이다.

이 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리아스식 해안을 갖추고 있고 해식과 풍화작용에 의해 생긴 독특한 낭떠러지들로 경관이 뛰어나며 후박과 동백나무 등 다양한 온대 식생과 사구 염생식물

군락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337종에 달하는 철새들의 이동통로로 그 가치가 널리 알려져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현재 105개국 529곳이 지정됐으며 국내에서는 설악산과 제주도, 북한에서는 백두산과 구월산이 지정돼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부취재본부 (061) 908-8111	목포 (061) 276-9200	나주시 (061) 332-5544
광안 (061) 653-8444	강진 (061) 434-6830	나주군 (061) 332-7764
영암 (061) 792-8111	무안 (061) 452-8535	담양 (061) 383-8111
순천 (061) 746-8111	신안 (061) 243-3758	영암 (061) 473-2340
고흥 (061) 842-2121	완도 (061) 554-6677	장성 (061) 392-2100
레 (061) 783-8111	영광 (061) 351-0055	장흥 (061) 863-8822
곡성 (061) 362-8111	진도 (061) 543-0100	화순 (061) 374-4423
보성 (061) 853-1190	함평 (061) 324-8111	광산 (062) 944-0444
	해남 (061) 534-5151	

광주 전남 大山프리모님네기발

기능장 1호

타사제품 보상판해

555-8888 '사랑세상' 방문

가발

조슬림!!

귀하의 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우전화: 061-873-3858, 872-8592

전통머리매 011-887-5300

가장 권위있는 기업은 뭘
무등산 문헌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성리 피자를 누기 준비하십시오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